

5 - 2



차례

2학기에 이루고 싶은 나의 목표 (도그만의 일기장 꿈들을)	1
책을 읽고 다양한 형식으로 독서록 쓰기	1
백일장 글 이어서 완성하기	6
추석맞이 선택과제 해결하고 내가 들은 덕담 쓰기	10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시 쓰기	13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이란?	18

<2학기에 이루고 싶은 나의 목표>

강혜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공아영	운동 많이 연습하기
김보민	수영 대회 1등 하기
김보아	고운 말 사용하기
방서빈	사회 더 열심히 해서 모르는 단어 이해하기, 손톱 물어뜯는 습관 고치기
성하율	책 많이 읽기
정예린	역사 문제집 매일 풀기
최가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기
최수아	수학, 사회 공부 열심히 하기
최지아	책 많이 읽기
한윤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고승현	키 크기
김다겸	20분씩 뛰기
김동영	천재 되기
성동준	기타 코드를 다 외우기
이지유	자전거 안 타기
이태민	그림 더욱 잘 그리기
장대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운동 하며 게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진	다이어트 하기
제환승	키 크기
조유하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표 월	그림 마스터하기
김보경	5cm 키 크기
오연우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활발해지겠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정 혁	살 빼기(55kg까지)

<책을 읽고 다양한 형식으로 독서록 쓰기>

'갯벌책'을 읽고.....

<강혜라>

저는 갯벌책을 읽었는데 갯벌에는 밤개, 바지락, 동죽, 집개, 맛조개, 왕좁쌀무늬고등이 있습니다. 갯벌에는 식물도 살아요. 예를 들면 갯잔디, 칠면초, 방석나물, 갯질경이, 해당화, 모래지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은 신비롭고 멋집니다. 갯벌에서는 물고기도 사는데 짱뚱어와 망둥어는 갯벌 구덩이를 만들어 다

른 생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헬렌니어링'을 읽고.....

<공아영>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 없다는 헬렌이 열심히 손수 일구고 채소도 가꾸었다는 게 인상 깊었다. 그리고 돌을 모아 손수 집을 짓고, 양식을 먹을 만큼 마련이 되면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는 장면도 매우 인상이 깊어 글을 써 본다. 나는 나중에 헬렌니어링처럼 멋진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식물'을 읽고.....

<김보민>

벼는 원래 습한 지방에서 살던 식물로 기온이 높고 물이 많아야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년에서 봄부터 가을에 걸쳐 기릅니다. 밀은 쌩이 트는데 있어 벼보다 공기 속의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흙 속에 물이 많으면 공기가 모자라 쌩이 트지 않아요. 그래서 밭에서 기른답니다. 벼와 밀의 차이는 벼는 털이 없지만 밀은 털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마음이 있나요?'를 읽고.....

<김보아>

오늘 또자를 잃어버렸다. 수빈이의 강아지 뭉치와 놀고 있었는데 뭉치는 자고 있고 또자가 없어졌다.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다. 놀이터를 다섯 바퀴를 돌았는데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말했는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밤 10시에 형석이가 또자를 주었다. 알고 보니 형석이가 또자를 가져간 것이다. 형석이가 조금 밉고 고마웠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어린이예요'를 읽고.....

<방서빈>

이 책은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 간단하게 예를 들은 책입니다. 사람들은 장애, 피부색, 성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저는 이 행동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

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부모님이 낳은 소중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단지 몸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것 뿐이고 다문화는 부모님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더 매력적이고 피부색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성별은 여자, 남자 두 가지가 태어날 때 랜덤으로 결정되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꽝 없는 뽑기 기계’를 읽고…….

<성하율>

나는 아빠의 심부름으로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빠의 헌 옷을 들고 현옷수거함에 넣으려고 했다. 그 때 아빠 바지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다. “아까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리고는 500원은 주머니에 넣고 옷을 현옷수거함에 넣었다. 쿵 하고 소리가 크게 났다. 난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가기 전에 새로 생긴 문방구에 갔다. 새로 생긴 문방구 앞에는 뽑기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1등이 한 장 있었고 나머지는 꽝이었다. 1등 상품은 내가 갖고 싶었던 다이노 폴리스였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1등을 뽑았다. 그래서 나는 뽑기를 안하고 문방구 뒤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골목길을 걸었다. 그 골목 끝으로 가 보니 어떤 남자애가 “너도 뽑기 하러 왔니.”라고 하며 어떤 문구점으로 날 데려갔다. 남자아이가 또 말했다. “이건 꽝 없는 뽑기 기계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냈다. 그리고 뽑기 기계에 500원을 넣었다. 뽑았다. 열어보니 처음으로 1등이 나왔다. 근데 1등 상품이 누가 몇 번 쓴 칫솔이 2개나 나왔다. 칫솔에서는 솔직히 입 냄새도 조금 났다.

‘내 이름은 264’를 읽고…….

<정예린>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이것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그렇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봐. 가장 멋지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

고 싶지 않겠나? 나는 그게 진정한 멋이라고 생각해.” 이 문장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육사 시인의 열정이 느껴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이다. 이 책은 나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나도 이육사(본명:이원록) 시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화해 대작전’을 읽고…….

<최가윤>

주인공이 친구랑 싸웠는데 엄마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되어서 주인공이랑 친구가 엄마들을 화해시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과 친구 둘이서 엄마들을 화해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았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에 오렌지 주스를 다 같이 웃으면서 마시는 장면이다.

‘떠돌이 할아버지와 집 없는 아이들’을 읽고…….

<최수아>

아르망 할아버지는 진짜 천사인 것 같다. 자신은 수지네 가족보다 더 상황이 어렵고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수지네 가족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일자리를 구해서 도와주려 하는 모습이 정말 좋다. 또 스토리도 좋아서 별점 4.5점을 주고 싶다.

‘긴긴밤’을 읽고…….

<최지아>

-나: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으로 가족을 잊으신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노든: 그땐 모두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가족을 죽였으니까요.

-나: 그러시군요. 혹시 처음으로 치쿠를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노든: 무슨 펭귄이 말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나: 그렇군요.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노든: 네

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은 ‘나를 혼

자 보내지 마요’, ‘이리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 해줄게. 오늘 밤은 길거든’이다. 이 글이 감동적인 것은 아기 펭귄이 울면서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고, 아이가 우니까 노든이 아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슬펐다.

‘나는 지구인’을 읽고…….

<한윤아>

-나: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주인공: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랑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놀고 싶습니다.

-나: 대만으로 와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주인공: 좋은 점은 중국어를 배운 것이고 안 좋은 점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아빠가 시계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주인공: 시계를 고칠 수는 있지만 시계를 고치는 게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나: 베트남에 와서 뿌듯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었는데 여자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경찰은 베트남어를 몰라 베트남어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베트남어를 저만 알아서 제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읽고…….

<고승현>

오프라는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었다. 오프라의 엄마는 너무 슬픈 나머지 오프라를 버리고 도시로 돈을 벌려 떠났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프라를 키우게 되었다. 할머니가 너무 잘 키워주셔서 오프라는 월반도 할 정도로 똑똑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시게 되어 엄마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곳은 아주 지옥이었다. 엄마와 새아빠가 오프라를 학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와 살게

되었다. 엄마와 반대로 아빠와 새엄마는 천사였다.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고 사랑을 주며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엄마가 집에 와서 오프라를 키우게 된다. 오프라는 절망에 빠졌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까지 당한다. 하지만 오프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 예능, 토크쇼, 아나운서 등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장군이네 떡집’을 읽고…….

<김다겸>

장군이가 장군이네 떡집으로 가서 떡들을 먹으면서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장군이가 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장군이에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몸도 건강히 지내라고 말하고 싶다. 원래 장군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기 때문에 떡들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스토리여서 장군이에게 공부 잘하고 몸도 건강하라고 하고 싶었다.

‘친구의 전설’을 읽고…….

<김동영>

친구의 전설은 웬 이상한 호랑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꽃이랑 간부가 되고 나중엔 그 친구가 죽는 내용이다. 친구의 전설을 읽고 나도 친한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민들레꽃이었다면 썩을 때까지 안 죽고 호랑이 곁에 있어 평생을 지켜주며 호랑이랑 살았을 것 같다.

‘이봉창’을 읽고…….

<성동준>

여러분 이봉창 의사의 아시나요. 오늘은 이봉창 의사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사는 김구와 같은 비밀 조직에 있었고 이봉창 의사의 사는 김구가 만들어 준 수류탄 두 개를 받아 일본 황제의 파티에 출정하는 마차에 수

류탄을 던진 사람입니다. 수류탄 1개는 왜 갖고 있었냐고요? 그건 만약 거사에 실패했을 때 그 수류탄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어요. 정말 멋진 분이죠. 여러분도 영웅 이봉창이란 책을 읽어보시고 이봉창 의사가하신 일을 감상해 보세요.

‘빈센트 반고흐’를 읽고…….

<이지유>

빈센트 반고흐가 병을 앓고 괴로워하며 정신 병원에서 자살한 것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고 슬프다. 책을 읽은 후 빈센트 반고흐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만들었고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 나는 특히 빈센트 반고흐의 작품에서 별이 빛나는 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병을 앓으면서 그런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유의 밤의 느낌을 잘 살려 표현한 게 좋았다.

‘톨스토이’를 읽고…….

<이태민>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문학가이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시골 마을인 야스나야 폴라나에서 백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큰형 니콜라이가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아이들은 의자를 가져와 두 줄로 놓고 담요를 써워 어두운 개미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굴로 들어가 바닥에 몸을 붙이고 개미 놀이를 했다. 큰형이 동생들에게 초록 지팡이를 아냐고 물었다. 그 지팡이에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큰형이 말했다. 톨스토이가 보여달라고 얘기하자 큰형은 숲속에 있다고 얘기했다. 톨스토이는 언젠간 찾겠다고 다짐했다. 톨스토이가 언젠가 초록 지팡이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톨스토이와 관련된 책이 1284권 정도 있었다.(네이버-톨스토이 책) 그리고 톨스토이는 형들과 사냥을 떠났을 때에도 토끼가 불쌍해 사냥을 안 했다. 톨스토이는 착하고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수상한 전학생’을 읽고…….

<장대윤>

To. 승연

안녕 승연아. 나는 5학년 장대윤이라고 해. 왕따를 당하느라 정말 힘들었지? 새로운 전학생이 너에게 먼저 다가가 주어서 정말 좋았지? 나도 전학을 왔을 때 먼저 다가와 주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더라. 나는 너에게 먼저 다가와 준 학생이 너랑 친하게 지내준, 너를 감싸준 학생이 로봇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너는 이 편지를 읽고 로봇인 걸 알겠지만 정말 속상할 것 같아. 그리고 주인공 수아가 마지막에 친구들 앞에서 오해를 풀어주면서 너에게 미안하다고 한 게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수아랑 잘 지내고 너의 의견을 잘 말하기 바랄게. 응원할게. 그럼 안녕!

2024년 6월 15일 책을 읽고 쓴 대윤이가

‘수일이와 수일이’를 읽고…….

<천원진>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수일이라는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덕실이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덕구가 자신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자 수일이는 생쥐에게 손톱을 주었고 생쥐가 수일이로 변해 수일이 대신 학원을 가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가짜 수일이는 진짜 수일이의 자리를 탐내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수일이가 불쌍하면서 내 일은 나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을 읽고…….

<제환승>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해리포터, 론, 헤르미온느, 말포이 등이다. 인상 깊은 장면은 해리가 볼드모트가 돌아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해리포터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정신이 나가서 망상을 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믿은 장면이다. 그리고 슬픈 장면은 시리우스가 동생 벨라트릭스한테 당해 시리우스가

죽는 장면이 정말 슬픈 장면이었다. 그리고 볼드모트에겐 호크룩스라는 게 있는데 호크룩스가 있으면 부활할 수 있고 안 좋은 점은 호크룩스가 다 파괴되면 힘을 잃게 되고 부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갯벌책’을 읽고…….

<조유하>

동해안에 갯벌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조차가 작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서였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갯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갯벌에 따라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았다. 마지막으로 재미있었다.

‘헬렌켈러’를 읽고…….

<표 원>

헬렌켈러가 포기를 쉽게 하는 성격이었다면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을 것이고 위인도 못되고 애초에 죽고 싶었을 것이다. 선생님도 못 만나고 공부도 못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못 돋고 그냥 슬프고 화가 났을 것이다.

‘지현이의 즐겨찾기’를 읽고…….

<김보경>

0000년 0월 00일

오늘은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숙제를 내주셨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래서 오늘은 계획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인터넷 숙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박물관을 쳐보았다. 그때 외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셨다. 외할머니는 방금 박물관에 갔다 오시는 길이었다. 외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집에서도 박물관을 볼 수 있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의사소통으로 가 보았다. 그곳에서는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가끔 보였다. 의사소통을 할 때 악플로 받아치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는 인상이 찌푸려졌다. 다음날 나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러한 점들을 정리해서 숙제로 글을 써서 올렸다. 친구들이 잘 썼다고 해

서 기분이 좋았다.

‘끌말잇기’를 읽고…….

<오연우>

그린이가 살이 쪄서 산에 오르게 되는데 심심해서 아빠랑 끌말잇기를 했다. 그러다 어느 새 정상에 올랐고 그린이는 배가 고파서 아빠랑 순대국밥을 먹으려 가는데, 가면서도 끌말잇기를 계속했다. 말하면 배가 고플텐데 신기했다. 그리고 순대국밥을 먹으려 갔을 때 그린이가 순대국밥을 엄청 잘 먹는 점이 그린이 아빠 옛날 때랑 똑같았다. 그게 아빠랑 그린이랑 이어져 있는 것 같아 궁금하면서 놀라웠다.

‘지끈지끈 스트레스 편지’를 읽고…….

<정 혁>

이 책은 다양한 친구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알려준다. 스트레스가 왜 일어나는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때가 가장 좋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등 다양한 정보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지 적은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나는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잘 안 느끼는 편이고 스트레스를 풀 땐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했다.

<백일장 글 이어서 완성하기>

누군가가 아래와 같이 백일장 글쓰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글을 이어서 완성해 보세요.

『제목: 내가 좋아하는 하늘

하늘은 참 변덕스럽다. 흰 구름 하나 없이 푸르고 맑은 하늘이었다가 먹구름 가득한 어둠을 몰고 온다. 누군가는 봄이라서 그렇다고, 누군가는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여가며 하늘을 설명하려 한다. 바람이 많이 불어 흰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구름들이 이리저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출처: yes24 x 한국어린이출판연합

<강혜라>

나는 맑은 하늘과 크고 몽실몽실한 하늘을 좋아한다. 노을 진 하늘도 깜깜한 밤하늘도 달이 멋지게 뜬 하늘도 모두 예쁘고 아름답다. 어떤 날은 잔디에 누워 하늘을 보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하늘은 그런 것이다.

<공아영>

나는 구름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구름들이 모양을 잡고 각각 표현을 나타내는 것도 좋고, 구름이 너무 많이는 모여 있지 않고 적당하게 모여서 모양을 잡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태풍 모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김보민>

나는 하늘을 좋아한다. 하늘은 맑고 푸르고 아름답다. 하늘은 언제나 날 반겨준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하늘은 마치 내 친구 같다. 구름이 많으면 하늘은 못 본다. 가끔 비가 오기도 한다. 근데 비가 온 다음 날은 예쁜 무지개가 뜬다. 기분도 무지개 같다. 그래서 구름도 좋고 비도 좋다. 나도 친구가 많다. 하늘, 구름, 비 다 좋다.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다.

<김보아>

나는 구름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다. 나는 그냥 하늘이 좋다. 비가 오든 구름이 있든 눈이 오든 번개가 치든 나는 하늘이 좋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새가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열기구가 있다. 하늘은 다양한 소리를 낸다. 우르르 쾅쾅쾅 짹 짹 다양한 소리를 낸다. 나는 가을 하늘이 더 좋다. 더 맑고 더 높고 더 푸른 하늘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하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하늘은 정말 재미있는 친구다.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화났다가 갑자기 운다. 정말 재미있는 친구이다.

<방서빈>

나는 몽글몽글하고 그림 같은 구름을 좋아한다. 이 구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다른 구름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다섯 살 때 처음 본 이 구름이 잊혀지지 않는다. 사실 잊고 싶지 않지만 말이다. 가끔 그 구름이 보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그 구름을 불러볼 때도 있지만 쉽게 올 리가 없다. ‘그 예쁜 구름은 어떻게 모양이 그렇게 생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도 헛수고다. 구름을 감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금방 사라져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었다. 그 구름을 처음 본 날로부터 약 7년 후인 지금까지도 그 구름은 나한테 인생 구름이다.

<성하율>

나는 구름이 크게 또는 작게 여러 가지 크기로 모여 있는 하늘을 좋아한다. 또 바람이 불어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도 좋아한다. 갑자기 비가 오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기분이 좋아진다. 비가 오다 하늘이 화가 나면 번개가 치고 하늘이 기분이 좋아지면 해가 떠서 땀이 난다. 하늘은 갑자기 울고, 웃고, 화내기도 한다. 하늘은 참 변덕스럽다. 그래도 나는 이런 하늘이 좋다.

<정예린>

나는 어둠이 가득한 밤하늘에 별이 수 놓인 밤하늘을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이 밤하늘은 여름의 무더운 열대야일 수도 추운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하늘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하늘에게 감사하며 살아간다. 하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공기를, 태양을, 빛과 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지구 밖 저 멀리 우주에도 또 다른 하늘이 존재한다. 거기 있는 누군가는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하늘을 좋아할 수도 있고, 무더운 여름 바다 밑에 있는 하늘을 좋아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린 하늘 아래에서 살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늘은 무엇인가?

<최가윤>

나는 푸른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푸른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구름까지 보면 기분이 더더욱 좋아지기 때문이다. 또 날씨도 맑으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맑은 하늘이 제일 좋다.

<최수아>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아무 하늘이나 상관없이 다 좋아한다. 구름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다.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해 주는 비구름, 아름다운 하얀 눈을 솔솔 뿌려주는 눈구름 등등 여러 역할을 하는 구름들이 있다. 그런 구름이 넓고 넓은 하늘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자연은 정말 신비롭단 생각이 든다. 또한 하늘은 신이 만들었다. 아름답고 신성하신 신이 하늘을 만들었다니. 참으로 하늘은 멋진 존재다. 물론 하늘이 재앙을 줄 수도 있다. 토네이도, 먹구름 등 하늘이 어둠을 몰고 올 때도 있다. 그렇지만 몇몇 구름 빼곤 나머지 구름들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좋아하는 것이다.

<최지아>

나는 하늘 그 자체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하늘은 항상 넓고 푸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 어른들이 말한다. “하늘은 항상 푸르지 않아. 어느 날은 먹구름이 껴서 어둡지.” 하지만 어른들은 모른다. 먹구름이 껴서 어두운 것이지 그 뒤에 있는 하늘은 푸르다는 것을 말이다. 이걸 쉽게 생각해 보면 먹구름이 푸른 하늘 앞을 막아서 어두워진 것이고, 그 뒤의 하늘은 본연의 색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하늘을 좋아하는 걸 어른들께 말씀드리면 항상 어른들은 그러신다. “혹시 우울하냐.” 그런데 나는 그 말이 제일 싫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늘, 그 자체를 좋아해요. 우울하지 않아요.”

<한윤아>

나는 구름이 없는 하늘이 좋다. 하늘에 구름이 없어야 하늘이 파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구름이 없으면 하늘에 둉뚱떠다니는 비행기도 잘 보이고, 새들도 잘 보이고, 가끔은 헬리콥터도 보인다. 그렇지만 새벽 하늘에서는 구름과 해가 같이 보여야 훨씬 멋있다.

<고승현>

나는 어떤 구름이든 다 좋다.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구름도 여러 종류의 구름이 있다. 몽글몽글한 구름을 보면 내 마음도 몽글몽글해지고, 구름이 뻥 뚫린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내 마음이 시원하게 뚫린 것만 같다. 그리고 비를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몰려와 있는 날에는 창가 쪽에서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며 마음이 정말 편안해진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류의 구름이든 다 좋다.

<김다겸>

나는 흰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는 이런 상상도 한다. 언

젠가 저 구름 위에서 편안하게 누울 거라고. 폭신풍신하고 보들보들한 구름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구름을 그리고 구름을 상상하는 게 재미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생각이 나고 구름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 꿈은 구름 위에 누워보거나 구름을 만져보는 것이다. 언젠가는 꼭 구름 위에 눕고 구름을 만져볼 것이다.

<김동영>

나는 하늘에게 배신을 당한 때도 있지만 하늘과 친구가 된 적도 있다. 하늘에게 배신당했던 때는 구름이 나한테 욕 모양처럼 생긴 구름을 보여주었던 때이다. 하늘과 친구가 되었던 적은 학교가 끝나고 비가 안 멈추었을 때 나에게 우산이 없었는데 방과후 수업을 다 마치고 나와보니 비가 멈춰주었을 때이다. 나는 그래서 하늘을 싫어하지 않고 하늘이 더욱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하늘은 맑고 푸른 하늘이 더 좋다. 나는 하늘을 좋아한다.

<성동준>

나는 구름들이 이리저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하늘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구름을 왜 좋아하냐면 구름이 몽실몽실 모여 있다가 춤을 추듯 흩어지면 내 마음의 안 좋은 기억이 짹하고 내려가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하늘과 이런 몽실몽실한 구름을 좋아한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잘못했던 일, 나쁜 일, 무서운 일, 부끄러운 일, 민망했던 일 등 그동안의 좋지 않은 기억이 맑고 파란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난 이런 하늘이 좋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눈물처럼 쏟아지면 누군가는 비에 맞아서 찢찝하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빗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과 개성,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 빗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유리창에 비가 부딪치면서 나는 그 통통 소리가 너무 좋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나요?

<이지유>

나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푸른 하늘에서 비가 똑똑 떨어지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 오면 더웠던 몸이 서서히 식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누군가는 쨍쨍하던 햇살이 없어져 비를 맞아 기분이 안 좋겠지만 나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걸 행운이라 생각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하늘이 주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비가 오면 하늘에 있는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자연을 씻겨 주는 기분이 든다. 또 번개가 치면 무섭기도 하지만 멋있는 기분이 들고 신기한 느낌이 든다. 비가 오면 나는 행복하다. 비 덕분에 좋은 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뜨거웠던 날씨가 시원해지고 주로 전을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빗소리도 참 좋다. 나는 그래서 먹구름이 끼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 더 좋다. 먹구름이 끼고 번개 치는 날은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태민>

나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까지 닿으려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주는 검은색(?), 남색(?)인데 하늘은 푸른색인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구름은 기체인지 고체인지 궁금하다.

<장대윤>

나는 어두운 밤하늘에 눈이 오는 것이 좋다. 누군가는 나의 밤하늘을 싫어하겠지만 또한 누군가는 내가 생각하는 밤하늘을 좋아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많고 변덕스럽고 울고 화나는 하늘이 많겠지만 나는 어두운 밤하늘에 눈이 오는 것과 저 면 쪽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에 낮 하늘이 정말 예쁘더라.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리? 하늘이 울고 화나고 실망하는 것을 우리는 다 참아야 한다. 왜냐고?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모든 하

늘이 다 좋다. 우리도 하늘처럼 맑고 웃음기 있게 살아가자. 울고 웃고 화나고 많은 감정들이 나를 조종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참고 살아가야만 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늘처럼 멋있게 살아가자!

<전원진>

나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하늘이 참 아름답고 고맙다고 생각한다. 솜사탕 같은 구름은 언젠가는 거뭇거뭇해져 타닥타닥 비를 내리고 우르르 쾅쾅 번개를 치게 한다. 나는 이런 하늘이 너무 좋다.

<제환승>

나는 그냥 하늘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 또 다른 사람은 하늘과 비행기를 좋아해서 비행사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내 친구는 또 다른 하늘을 보고 싶어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로라가 보고 싶어 추운 데로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하늘을 좋아해서 열기구를 타고 싶어하기도 한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늘도 많구나.

<조유하>

나는 밤하늘이 좋다. 노란빛의 달 옆 여기저기 흩어진 별들. 언뜻 보면 오색 빛으로 빛나는 검은 하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환상 속의 세계에 있는 것 같다. 한 번 서늘한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안녕?”이라고 인사한다. 밤하늘 아래의 바다를 보면 꼭 달을 담아둔 것처럼 보인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신비로운 곳에 있는 것 같다. 난 그래서 밤하늘이 좋다.

<표 원>

나는 놀러갈 때 볼 수 있는, 금방 사라지는 비행기 구름을 좋아한다. 하지만 하늘이 번쩍하고 비가 내리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노을에 비친 구름이 보이면 따라서 기분이 신이

난다. 구름이 없는 날은 더워서 지친 기분이 듈다. 하지만 구름이 있다면 더운 햇살을 가려 주니 기분이 상쾌하고 맑아지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김보경>

나는 하늘이 변덕스러워서 더 좋다. 비가 오는 날의 빗소리를 좋아하고, 눈이 오는 날의 눈송이들이 아름다워 보인다. 봄에는 하늘이 꽃을 파릇파릇하게 하고, 가을에는 바람이 불어서 낙엽들이 살랑거리서 좋다. 하늘이 무엇을 해도 좋다. 근데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태풍이 불고 폭우가 오면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몰려온다. 그래도 하늘은 마치 어제 미안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날에는 예쁜 하늘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하늘이 변덕스럽지만 그래도 좋다.

<오연우>

나는 그냥 하늘이 좋다. 먹구름이 껴 있는 하늘. 하늘조차 볼 수 없는 비 오는 하늘. 상쾌하고 구름 없는 새파란 하늘. 하늘이 맞는지도 모르겠는 눈 오는 하늘. 하얀 구름이 많이 껴 몽글몽글한 하늘. 나는 하늘이면 다 좋다. 하늘에는 우리 증조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증조할머니의 상태에 따라 하늘은 다르다. 하늘은 마치 나의 하루 동안의 기분 같다. 다양한 하늘은 제각기 자기만의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은 우리 증조할머니를 닮았다. 그렇다. 하늘은 우리 증조할머니라서 나는 하늘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늘은 매일 바뀌는 모습이 아름답다. 매일 다른 하늘을 보는 맛이 있다. 오늘은 이 하늘, 이번에는 이 하늘. 내가 좋아하는 하늘은 우리 증조할머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본다. 아니, 할머니를 올려본다.

<정 혁>

나는 햇빛이 가려질 정도의 구름이 있지만 비는 오지 않는 하늘을 좋아한다. 그런 날은 놀기 딱 좋은 날씨다. 여름철 밖에 나가 놀다

보면 얼굴이 탄다. 하지만 구름이 많은 날엔 타지 않는다. 그래서 좋다. 그렇지만 비가 오는 하늘은 싫다. 비가 오면 옷이 젖고 그러면 옷이 무거워져서 움직이기 힘들다. 우산을 쓰면 한쪽 팔을 못 쓰고 우비를 입으면 덥다. 그래서 싫다.

<추석 맞이 선택 과제 해결하고 내가 들은 덕담 쓰기>

1. 나를 알자!

<강혜라>

↳내 이름의 뜻: 姜 혜라

‘바다의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

↳덕담: 잘하네. 축하해.

<방서빈>

↳내 이름의 뜻: 房 瑞(상서 서)彬(빛날 빈)

‘타고난 재능과 지혜를 발휘하여 널리 명성을
떨치고 성공을 이루며 매사 상서롭고 경사로운 일만 가득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라’는 뜻.

↳덕담: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무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길 바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김보민>

↳내 이름의 뜻: 金 甫(클 보)珉(옥돌 민)

‘크고 예쁘게 크라’는 뜻.

↳덕담: 추석 절을 할 때 여자가 손을 왼손으로 올리고 남자는 오른손을 올리기.

<성하율>

↳내 이름의 뜻: 成 河(강이름 하)律(법 율)

‘물처럼 맑은 성품을 지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를 바라며

법을 잘 아는 똑똑한 아이가 되길’이라는 뜻.

↳덕담: 건강하고 행복하기!

<정예린>

↳내 이름의 뜻: 鄭 豫(미리 예)潾(맑을 린)

‘미리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

↳덕담: 엄마 말씀 잘 듣고 좋은 친구 사귀어.

<최가윤>

↳내 이름의 뜻: 崔 嘉(아름다울 가)允(진실로 윤)

‘아름답고 진실하다’는 뜻.

↳덕담: 이름처럼 아름답고 진실하게 컸다.

<오연우>

↳내 이름의 뜻: 吳 緣(인연 연)禡(복 우)

‘복이 이어진다’는 뜻.

↳덕담: 연우 왔어. 이것도 더 먹어. 뭐 사줄 게. 잘 가고 다음에 또 와.

<김다겸>

↳내 이름의 뜻: 金 茶(차다 다)謙(겸손할 겸)

‘아름답고 겸손하게 성장하라’는 뜻.

↳덕담: 복 많이 받아라.

<성동준>

↳내 이름의 뜻: 成 棟(마룻대 동)俊(준결 준)

‘재주가 뛰어나서 나라의 중요한 인재가 된다’는 뜻.

↳덕담: 동준이 건강하고 학교 건강하게 다니고 형아랑 건강하게 지내고 엄마랑 아빠랑 싸우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 건강이 최고여 그리고 돈도 최고여.

<이태민>

↳내 이름의 뜻: 李 泰(클 태)旼(화락할 민)

‘잘 크고 화목하다’는 뜻.

↳덕담: 건강하게 잘 먹고 건강해라.

<장대윤>

↳내 이름의 뜻: 張 大(큰대)瀛(물 깊고 넓을 윤)

‘큰 물처럼 깊고 넓게 살아가라’는 뜻.

↳덕담: 추석의 상징인 보름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어라.

<전원진>

↳내 이름의 뜻: 全 源(근원원)辰(지지진)

‘별의 근원’이라는 뜻.

↳덕담: 건강하게 잘 크거라.

<제환승>

↳내 이름의 뜻: 諸 煥(빛나다환)昇(오를승)

‘해가 높은 곳에서 지위가 오르다’라는 뜻.

↳덕담: 건강하고 보자.

<정 혁>

↳내 이름의 뜻: 鄭 炳(빛날혁)

‘빛난다’는 뜻.

↳덕담: 항상 행복이 최고 먼저이다. 하지만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2. 오늘은 나도 요리사!

<공아영>

↳산적, 잡채 요리 만드는 방법

: 산적은 꼬챙이에 고기, 파, 오징어, 맛살을 끼워서 만들었고 잡채는 당면을 불려서 당근과 돼지고기 버섯, 시금치를 함께 볶아서 만듭니다.

↳요리를 도운 소감 :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 고 많이 힘들구나’를 많이 깨달았고 앞으로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들은 덕담: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건강이 최우선이니 건강을 잘 챙겨라.

<김보아>

↳내가 도운 명절 음식: 잔치국수, 나물, 모듬전

↳요리를 도운 소감 : 반찬을 옮기고 수저 세

팅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 모듬전에 계란물을 묻혔다. 계란물을 묻히는데 조심 조심 해야하고 계속 계란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서 힘들었다. 설거지와 수저 세팅은 평소에도 자주 하는 일이여서 쉬웠다.

↳들은 덕담: 부모님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좋아. 건강하기만 해.

<최수아>

↳전 만드는 방법: 믹싱볼에 계란 5개를 넣어서 푸다. 전으로 만들 재료에 판을 맞춘다. 재료를 튀김가루에 묻힌다. 재료를 계란물에 골고루 묻힌다. 재료를 접시 위에 담는다.

↳요리를 도운 소감 : 다음에는 이것 말고 굽는 것만 해보고 싶다.

↳들은 덕담: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인생 살아라.

<고승현>

↳비빔밥 요리를 도운 소감

: 야채를 썰고 밥 위에 올려진 참기름을 내 손으로 비비니 마치 슬라임을 만드는 것 같았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남은 반찬으로 비빔밥을 만들었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었다.)

↳들은 덕담: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해라.

<김동영>

↳송편 만드는 방법

: 할머니가 주신 반죽이랑 콩, 이상한 황토색 가루를 준비한다. 반죽을 잘 만들어서 송편 모양으로 만들고 안에 재료를 넣는다. 그리고 할머니께 드린다.

↳들은 덕담: 추석 잘 보내.

<이지유>

↳만두 만드는 방법

: 숙주, 두부, 다진 고기, 간장, 부추, 파를 모두 섞어 만두 속을 만든다. 만두피에 속을 적당히 넣고 예쁜 모양으로 빚는다. 찜기를 이

용해 물을 넣고 10분간 찐다. 간장에 찍어 한 입에 넣어 따끈따끈하게 먹는다.
☞들은 덕담: 앞으로도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표 원>

☞산적 꼬치 만드는 방법

: 딱딱한 재료는 꼬치의 모서리에 끼우고, 무른 재료는 가운데에 순서대로 끼운다.
☞요리를 도운 소감 : 엄마가 아침에 요리하시며 아침밥 만드시는 것이 힘드시겠다는 것을 느꼈다.
☞들은 덕담: 행복은 나누자.

: 부모님을 도와드리니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
☞들은 덕담: 건강하게 커라.

<김보경>

☞내가 한 봉사활동: 아빠랑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팔 주물러 드리기. 빨래 개기, 엄마 심부름 해드리기, 거실 청소하기

☞봉사활동을 한 후 나의 기분

: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팔 주물러 드릴 때 어른들께서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나도 좋았다.

☞들은 덕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

3. 봉사마스터!

<최지아>

☞내가 한 봉사활동: 삼촌 마사지, 아빠 다리 마사지, 아빠 볼에 뾰뽀하기
☞봉사활동을 한 후 나의 기분
: 너무 뿌듯하고 삼촌과 아빠가 좋아하셔서 나도 웃었다. 그리고 아빠에겐 뾰뽀를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들은 덕담: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한윤아>

☞내가 한 봉사활동: 식탁에 수저를 놓았고 밥을 먹은 식탁을 행주로 닦았고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정리했으며 가족들을 힘껏 안아드렸다.

☞봉사활동을 한 후 나의 기분
: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고 앞으로는 부모님을 더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들은 덕담: 키가 많이 컸다고 칭찬해 주셨다.

<조유하>

☞내가 한 봉사활동: 식탁에 수저 놓기
☞봉사활동을 한 후 나의 기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 로 시 쓰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나만의 비밀을 주제로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써 봅시다.

예시)

『

오백원

심진규

동생이

용돈 안 쓰고 돈 모으는
돼지 저금통
갈라진 틈에
손가락 넣어서
오백 원을 꺼내 과자 사먹었다.
과자는 고소했지만
마음은 쓴 맛이 난다.

』

출처: yes24 x 한국어린이출판연합

바나나 우유

강혜라

동생과

유튜브를 보다가
동생이 냉장고에서
바나나 우유를 먹으려고 열었는데
우유가 없어
내가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진짜 아니라고 하다 때리며 싸웠다

근데 아빠가 먹었다고 한다

티격태격

공아영

언니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방문을 쾅 닫으며
나를 밀쳐냈다

티격태격 싸우다

엄마가 와서 싸움은 종료되었다
휴~살았다

사기

김보민

동생이

나의 뉴진스 포카랑 거래하자고
한다
동생이 하자고 요란을 피운다
그래서 아이브 포카랑 거래했다

(일주일뒤)

언니! 언니가 왜 아이브
포카 갖고 있어!
너랑 거래했으니깐
뭔소리야! 내놔!
동생이 가져간다
이게 진정한 사기인가

양치

김보아

엄마가 양치를 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난 하기 싫어
동생이 양치할 때
나도 같이
화장실로 들어가 동생이 양치하는
소리에 맞춰 투명 양치를 했다

충치가 생길까봐 무섭지만
스릴 넘치고 재밌었다

오빠는 짜증 나

최가윤

답지

방서빈

엄마가
가지고 있는 답지
엄마가 씻고 있는 틈에
가져와 답지를 보며 문제를 풀었다

문제 풀기는 쉬웠지만
내 머리와 마음속은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오빠가 갑자기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

나도 똑같이 했더니
오빠가 계속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같이 싸웠다
한 대 때릴까
고민했는데 참았다
오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젤리

성하율

동생이
아껴놨던 젤리

동생의 가방에
손을 넣어
몰래 꺼내 먹었다

동생 몰래 먹으니
평소보다 맛있었다

게임에서 시비 걸린 나

최수아

로블록스에서 평화롭게 타이쿤을 하던 나
갑자기 한 외국 챔이 내 건물에 들어온 걸 본
나
아무 이유 없이 날 무한대로 죽이는 모습에
당황한 나
계속 죽이자 짜증이 나서 캐를 죽인 나
몇 분 동안 서로 죽이는 걸 반복하는 나와 외
국 챔
결국 마지막에 그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고
게임을 나간 나

만화책

정예린

동생이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만화책

동생이 목욕할 때
몰래 가져와서 읽었다
책은 재밌었지만
마음은 떨렸다

약국

최지아

어느 날
약국에서 약을 기다리는 중
약을 받아 집으로
총총총
이제 씻어야지 하며

동생 주머니를 확인하던 나는 주저앉았다
동생 주머니엔 산 적 없는 과자가 있었다

그날

동생은 혼나 엉엉
나는 놀라 뿌앵
내 마음 한 켠에서 죄책감이 느껴진다

게임은 재미있었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혼날까봐
무서웠다

친구 장난감

한윤아

친구가 아끼는 장난감
잠깐 방심한 틈을 타
훔쳤다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얻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억울함

김동영

급식 시간에
손을 씻고 걸어서
나오려는데

한 친구가 뛰다가
나랑 부딪쳤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먼저
사과도 안 하고 나 먼저
사과하라고 해서

난 무시하고 준비하려는데
그 친구가 2명을 더 불러서
나 보고 사과하라고
삼대일로 다구리 갔었는데
바로 무시했다
진짜 억울했다

핸드폰

고승현

엄마 몰래 꺼낸 폰
가슴이 콩닥콩닥 마음이 두근두근
핸드폰을 켰다

공포의 수영학원

성동준

끼익
'엄마다!'
똑
'휴 다행이다'

나는 오늘
수영학원 시험을 보는 날이다
종목은 자유형 배영 너무 떨린다

피씨방 PC

김다겸

나는
엄마 몰래
피씨 방에 갔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부스에 앉아 첫 번째 풍덩 합격
두 번째 풍덩 합격
그 다음 내 차례 풍~덩

합격! 아간 떨어질 뻔 했다

6학년

이지유

피씨방에서 시비가 털렸다
 키는 나보다 작은 일진을 만났다
 니네 어디초냐고 말했을 때
 난 중산이라 했는데
 눈치없는 다겸이가 하늘이라 했다
 놀정지가 왔지만
 다겸이는 당당했다

눈치를 밥말아먹었던 다겸이를
 병찌고 쳐다볼 때
 날다람쥐 **가 내 컴퓨터를 끄고 튀었다
 잡았지만 또 튀었다
 아 내 인생
 진짜 왜 이러냐

미아

전원진

여섯 살 때 놀이공원에서 놀았다
 근데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며 나를 불렀다

나는 가기 싫었고 그 때 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 내가 엄마한테 도망치면 이 기구를 더 탈 수 있겠지’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엄마에게 도망쳐 회전목마를 탔지만
 타고내리니 이 상황이 무서워서 울면서
 제자리에 있었는데
 다행히 엄마가 날 찾았고 난 집으로 돌아가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혼났다
 너무 서럽고 슬펐다

게임

이태민

아침에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여
 멀리고
 긴장되었다

대출

제환승

동생이
 학원에 간 사이
 지갑의
 지퍼를 열고

현질

장대윤

추석이다! 이모들이 용돈을
 주었다
 만원, 이만원, ...십만원.
 오! 십만원

오만원을 들고
 내 지갑에 넣었다

너무 좋았다

훔친 돈

조유하

엄마 심부름을 하려 나갔을 때
 몰래 게임에다 3만원을 투자했다
 기분은 좋지만 마음은 떨렸다

친구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돈
 500원

그걸 살포시 쐐였다

그 돈으로 껌을 사먹으니
두근두근 짜릿짜릿 했다

화가 나서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잊지 못했다

용돈

표 원

누나가
할머니 집에 못 간다 해서 나만
갔다

용돈을 누나 주라고
2배로 받았지만
묻고 더블로 비밀로 했다

몰폰

정 혁

엄마가 나간 집에서
소리 끄고 하는 몰폰
하면은 안 되지만
참을 수가 없다

물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밖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그러다가 들리는 소리
“차량이 입차하였습니다.”

4000원

김보경

동생이
푹 빠져있던 헬로카봇 장난감

먹고 싶던 과자가 비싸서
몰래 장난감을 가져갔다

바로 끄고 책을 읽는다
엄마가 들어오면 내 가슴은 쿵덕쿵덕
엄마가 알아차릴까봐 긴장된다

맛있는 과자를 샀는데
마음은 찢어지는 느낌을
사버린 것 같다

싸운 날

오연우

친구가 시비를 걸어
싸웠다

나는 가방을 휘두르고
친구도 가방을 휘둘렀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이란?>

강혜라: 네 명이 오순도순 밥 먹으며 이야기 하는 것

공아영: 싸우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배려해주는 행복한 가족

김보민: 다 같이 노는 것

김보아: 서로를 보면 웃음이 나오고 서로 눈 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방글방글 웃고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가족

방서빈: 예전에는 가족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가족 인원 수가 적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이가 좋은 가족이 행복한 가족인 것 같다.

성하율: 건강한 모습

정예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

최가윤: 엄마, 아빠도 한쪽 편만 들어주지 않고, 오빠들도 시비 걸지 않는 가족

최수아: 너무 규칙에 집착하지 않는 부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녀

최지아: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슬플 땐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주는 마음.

한윤아: 기분 좋을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고 위로해 주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족.

고승현: 어떤 모습의 가족이든 놀림 받지 않고 행복하고 화목한, 마치 절친 같은 가족

김다겸: 웃고 화기애애한 가족

김동영: 전체적으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가족

성동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 주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 기쁠 때 웃어주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

이지유: 다 같이 웃으며 밥을 먹는 것

이태민: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장대윤: 밖에 많이 나가고 다 같이 웃으며 항상 쟁겨주고 관심 많고 가족끼리 싸우지 않는 게 행복한 가족

전원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제환승: 잘 지내는 가족

조유하: 싸우지 않고 화목한 가족

표 원: 불행하지 않은 가족

김보경: 행복한 가족이란 싸우지 않는 가족

오연우: 평범한 일상과 가끔은 특이하고 재미 있는 가족이(지금 내 가족) 제일 행복한 가족이다.

정 혁: 서로 간에 거짓이 없고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저녁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는 가족